

서평

공화당의 위기: 이념의 실패 대 정책의 실패

최 준 영 (인하대학교)

- Lee Edwards, *The Conservative Revolution: The Moment that Remade America*(New York: the Free Press, 1999).

- Ryan Sager, *The Elephant in the Room: Evangelicals, Libertarians, and the Battle to Control the Republican Party*(Hoboken,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2006).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과 프랭클린 루스벨트에 의해 창출된 뉴딜 연합의 등장은 미국정치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우선 1860년 링컨의 집권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여 왔던 공화당이 소수당으로 몰락하고 민주당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정당 체계의 재편성이 일어났다. 또한 집권세력인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시장과 사회로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진보주의(liberalism)를 표방함으로써 진보주의가 미국사회의 주류적 이념체계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수세에 몰린 공화당은 진보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후버(Herbert Hoover)와 태프트(Robert Taft)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보수주의적 색채를 벗어던지고 시류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지만 공고한 뉴딜연합에 기반하고 있는 민주당의 아성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소수당의 위치를 벗어나기 위한 공화당의 노력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 공화당은 196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실시된 10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7번에 걸쳐 자당 후보를 당선시켰으며, 1994년부터는 상하원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공화당은 2001년부터 2006년의 기간 동안 약 2년 정도 상원을 민주당에 뺏긴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차지하여 명실상부한 다수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공화당은 2006년을 기점으로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 공화당은 2006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패배함으로써 입법부 내 주도권을 상실하였으며, 2008년에 실시될 대선도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화당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었는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라크전을 개시했던 부시 행정부에 대한 책임론의 제기나 공화당 의원들의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스캔들의 발생과 같은 것이 유권자들의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급격히 감소시킨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위기는 이 보다 더 근본적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공화당의 성공은 50년대와 60년에 걸쳐 발생한 보수주의 혁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보수주의 혁명의 근본정신에 모순되는 거대 정부 보수주의를 지향함으로써 공화당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발생시켰다고 한다. 한 마디로 공화당의 위기는 이념적 정체성의 위기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에드워즈(Lee Edwards)의 *The Conservative Revolution: The Moment that*

Remade America(New York: the Free Press, 1999)와 세이저(Ryan Sager)의 *The Elephant in the Room: Evangelicals, Libertarians, and the Battle to Control the Republican Party*(Hoboken,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2006)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화당의 성공이 보수주의 혁명과 어떻게 연계되어 왔는지, 그리고 부시의 거대 정부 보수주의는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공화당의 위기를 유발시켰는지 알아봄으로써 작금의 공화당의 위기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다.

진술하였듯이 1930년대 대공황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진보주의가 미국의 주류적 이념체계가 되는데 기여하였다. 이 시기에 보수주의는 그 명맥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는 “미국에서 진보주의는 지배적일뿐만 아니라 유일한 지적 전통”이며, 보수주의는 “사고(ideas)처럼 보이려고 하는 성마른 정신적 제스처(irritable mental gesture)”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진보적 비평가 트릴링(Lionel Trilling)의 주장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평가절하 되었던 보수주의는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진보주의에 대한 대안적 이념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에드워즈는 이러한 보수주의의 점진적 성장을 보수주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1950년대에 발생한 3가지 사상적 사건이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1950년대에 발생한 첫 번째 사건은 커크(Russell Kirk)와 같은 전통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의 출현이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이를 통한 발전을 강조하는 진보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전통적 가치와 사회적 질서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전통적 가치란 기독교적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의 권위를 추종함으로써 대중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타락해가고 있는

사회에 안정적인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이러한 전통주의적 보수주의는 후에 사회적 보수주의라 불리는 이념체계와 연계되어진다. 두 번째 사건은 하이에크나 프리드만과 같은 보수주의적 경제학자들의 등장이다. 이들은 정부의 시장으로의 개입이 보다 나은 경제상황을 만들어내지도 못할 뿐더러 인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보주의와 정면으로 대립하였다. 마지막 사건은 *Human Events*나 *National Review*와 같은 보수적 정론지의 출현이다. 이를 통해 사회에 산재해 있던 보수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발표하고 논쟁하며 토론함으로써 보수주의를 하나의 정치이념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에드워즈는 지식인들에 의해 시작된 이와 같은 보수주의 운동이 일종의 정치적 혁명으로 그 성격이 전환될 수 있었던 데에는 공화당 정치인들의 집권을 위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1950년대 후반부터 공화당 내 보수적 파벌은 민주당과 비슷한 진보적 공약을 제시하는 “Me-tooism(동조주의)”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진보주의에 대립되는 보수주의를 당의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노력은 1964년 철저한 보수주의자인 골드워터(Barry Goldwater)를 당의 후보로 선출하기에 이르렀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골드워터는 비록 선거에서 참패하기는 하였지만 지식인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던 다양한 보수주의적 분파들을 하나의 정치적 이념으로 규합시킴으로써 보수주의 혁명의 근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골드워터는 연방 정부의 축소, 개인적 자유의 강조, 사회적 질서의 확립, 반공주의와 같은 다양한 보수주의 아젠다들을 하나의 보수적 이념 텐트 속에 집어넣었고, 공화당을 이러한

이념을 사회 속에 구현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골드워터에 의해 시작된 보수주의와 공화당의 일체화 과정은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뉴트 깅그리치에 이르기까지 확대·재생산되어 왔으며, 민주당의 뉴딜연합을 와해시키고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부상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에드워즈가 보수주의 분파를 하나의 진영으로 편입시킨 주역으로 공화당 정치인들을 들고 있는데 반해, 세이저는 1950년대 *National Review*의 편집장이며 사상가였던 마이어(Frank Meyer)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세이저에 따르면 1950년대 보수주의는 기독교적 가치와 사회적 질서를 강조하는 사회적(혹은 전통주의적) 보수주의 그리고 작은 정부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라는 두 가지 큰 지류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두 지류는 서로 상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으며 따라서 두 진영 간의 대립도 자주 일어났다. 사회적 보수주의는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을 수호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권위와 권력에 의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특성을 보였다. 반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특정 가치와 전통을 사회 속에 확립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거대 정부의 등장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보수주의와 대립하였다.

마이어는 진보주의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주의 내 두 분파의 소모적 갈등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는 두 분파가 갈등적이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통합논리를 개발하였다. 미국 내 도덕적 쇠퇴 현상의 직접적 원인은 거대

정부의 존재에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 보수주의의 목적은 오직 자유지상주의의 작은 정부 안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뉴딜정부의 광범위한 복지정책의 도입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의존적인 인간들을 양산하였으며, 이들의 도덕성의 회복은 정부 복지정책의 소멸이나 감소를 통해, 즉 정부의 규모를 줄임으로써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세이저는 마이어의 “퓨전주의(Fusionism)”가 많은 보수주의자들의 공감을 얻어내었고 궁극적으로는 골드워터를 비롯한 공화당 정치인들에 의해 민주당에 대항하기 위한 대안적 이념으로 받아들여져 공화당의 승리를 견인하는 주요한 선거연합을 창출하는 기제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40여년에 걸쳐 지속되어온 보수주의적 퓨전은 부시가 주창하고 있는 거대 정부 보수주의의 등장 이후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 거대 정부 보수주의는 한 마디로 보수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보주의자들의 주요 수단, 즉 정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세이저에 의하면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보수주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권력과 권위에 의존하는 것을 애초에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거대 정부에 대해 태생적으로 반감을 지니고 있는 보수주의의 나머지 한 분파인 자유지상주의자들이다. 이들은 부시의 거대 정부 보수주의에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들이 거대 정부 보수주의를 비판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정부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이 보수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정권이 진보주의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 거대하게 성장한 정부는 보수주의자의 목적에 오히려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둘째, 부시의

거대 정부 보수주의는 감세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연방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 재정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언젠가는 세금을 올리는 계기가 된다. 셋째, 거대 정부 보수주의는 그 자체로 모순적이다. 정부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경우 정부의 규모를 확장시킨 목적이 무엇이었던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수적 아젠다의 실현이라는 명분하에 부시 행정부는 정부의 규모를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이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공화당의 보수적 선거 연합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현재 공화당이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거대 정부 보수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50년대와 60년대에 형성된 사회적 보수주의와 자유지상주의 간의 이념적 통합과 이를 토대로 한 공화당 선거연합이 와해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논객은 거대 정부 보수주의로 인해 공화당의 이념적 정체성에 혼란이 발생했을 수는 있으나, 이 때문에 사회적 보수주의자와 자유지상주의자로 이루어진 공화당 선거연합이 분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무리 거대 정부 보수주의에 반발한다하더라도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당으로 지지를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이다. 즉 자유지상주의자는 부시의 ‘거대 정부 보수주의’가 싫더라도 이것이 민주당의 ‘거대 정부 진보주의’ 보다는 낫기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 이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세이거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자유지상주의자의 본거지인 미국 서부지역 주들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주지사나 주의원으로 당선되는 사례가 2004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자유지상주의자의 공화당으

로부터 이탈 가능성이 실제로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2008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당내 예비선거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부시의 거대 정부 보수주의가 공화당의 공식적 이념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살아남는다면 공화당 보수주의 두 분파 간의 연합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결국 분열하고 말 것인지, 만약 분열한다면 공화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방정식은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인지 등은 2008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정치를 바라보는 주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